

“주께서 아시는가?”

■ 이종윤 원로목사

“저희가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호 8:4)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밖에 나갈 때와 귀가할 때 반드시 복명하는 것이 효도의 자세다. 만일 자녀가 그의 하려고 하는 일과 또 하고 있는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이를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아는 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사울왕의 패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왕의 승리의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잘 했다는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모독 행위다.
 설령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둘째, 주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물음과 허락은 다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라고 해서 허락받지 못한 일은 함부로 손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물음이란 것은 통고와 달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로 물은 일이라고 그의 허락 여부에 따라 행동해야지 아직 허락 받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까지도 주의 허락 여부에 따랐으며(행 16:6) 다윗왕은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 여하에 따랐다.(대상 17:4)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이니까 물론 허락하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것은 탈선을 범하게 된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더라도 주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 놓은 일이란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아서, 주의 아실 바가 못 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결코 행복스런 일도 못된다.

셋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주님의 방법(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요 또 허락 받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 도대체 세속적 방법에 의한 교회 사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님의 방법 아닌 것들이 너무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펴두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기도의 자세로 나쁘지는 않으나 그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다.

거룩한 손이란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 구제의 손이어야 하고, 주는 손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타심(利他心)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열납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아시는 바다. 정성과 감사와 간절을 담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다. 핍박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병중에 있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측은지심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 주듯이 하나님도 성도가 환난 중에 긍휼을 쏟으신다. 하물며 그 환난이 주를 위해 받는 환란임에랴! 회개하는 시간을 주님은 열납하신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도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검찰청에서 서울교회에 재정비리가 없었다는 것을 확정해 줌으로써 서울교회의 회복은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는 서울교회 3대 목사 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또한 중직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23일에 열립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기도의 지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일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와 타 교육부서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1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양하림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라루스),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종근·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뎬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저승사자인가 보호자인가? ”

■ 엡 6:1-4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는 세속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4절)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자욱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인가? 아니면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보호자인가?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저승사자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까?

1.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
 저승사자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마 23:13-15) 예수님은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을 전혀 보이지 않는 부모요 교회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자녀를 자욱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들을 현세의 축복만이 전부 인양 양육하는 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종교인의 모양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이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되고 움직이는 사람,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실천적 기준은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그들을 자욱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다’(마 7:21)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씌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 구주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수고와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성도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나가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좋은 교회를 다니다록 이끌어야 합니다. “참 부모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생가시게 만들거나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고 학대하며 잔인하게 억압하는 폭력 행사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언행들은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도 주안에서 우리와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도록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맺는 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교육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 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므로 저승사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간	인도	기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요삼 1:11...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 찬송 Hymn6(8)... 다함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97(청년주일)... 다함께
 * 송영 Doxology 1(1) ... 다함께
 기도 Prayer 말은이
 찬송 Hymn574(303)...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엡 6:1-4... 인도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함께
 봉헌 Offering 다함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찬양 Anthem 찬양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함께
 설교 Sermon“세상을 여는 통로”... 서정원 목사
 * 찬송 Hymn449(377)...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함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강희장 목사

목도 다함께
 성시 시 117:2 인도자
 찬송 85(85) 다함께
 기도 차영도 집사
 성경 ... 창 17:15-17, 사 43:19 ... 인도자
 찬양 찬양대
 설교 ... “인간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 ... 설교자
 * 찬송 487(535) 다함께
 * 축도 인도자
 * 주기도송 다함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도 I부: 이안순 권사 II부: 김복희2 권사
 성경 딤후 1:9 인도자
 찬양 찬양대
 설교 ... “예정(豫定)과 하나님의 은혜” ... 설교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요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소식

모임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 / 오늘 16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 공동의회 / 안건 -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선출 일시 - 23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알림

- 101호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9-1, 13-11, 14-3~4다락방 결혼 1. 이정훈 군(16교구 정복순 권사의 장남) 강유진 양(강기춘, 김명희 씨의 장녀) / 5월21일(금) 오후 7시 아모르하우스(02-562-6936) /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 지이근 군(9교구 지성철 집사, 유묘중 권사의 차남) 정재인 양(정환삼, 성기옥 씨의 차녀) / 5월22일(토) 오전 11시30분 라비두스(02-2265-7000)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앞 셔틀버스 이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254명	408명	1,662명	404명	1,308명

청년 문화

청년 문화는 기성 문화와 달리 완성되어 닫혀진 문화가 아니며 상수보다는 변수가 더 큰 문화이기 때문에 개연성을 가진 열린 문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청년 문화는 지금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기성 문화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도전 문화이며,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미래 문화이다.

세대적 갈등과 가치체계의 변이가 가져다 준 우리사회의 질병은 기성 문화가 청년 문화를 수용하고 해석하기 보다는 불완전하고 시험되지 않은 위험 문화라는 이유로 조건없이 거세시키는 부정심리라는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청년 문화는 기성 문화를 대치할 만한 자력도 없이 기성 문화에 대한 도전만을 일삼는다면 이 또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결단하는 지혜를 터득하여 미래 세계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십시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	--	--	--	--	--	--	--

찬양대						봉헌송		
예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헌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